

식민지 시기 일본 공장으로 간 제주 여성*

서지영**

1. 여공과 식민지 근대
2. 제주 여성들의 도항과 여공으로의 변신
3. 1920-30년대 오사카 기시와다 방직(岸和田紡績) 공장의 조선인 여공들
4. 일본 속 제주 여공들의 목소리 또는 시선
5. 근대초기 제3세계 서발턴, 일본 공장의 조선인 여공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식민지 시기 일본 공장으로 이동한 제주여성들의 여공체험에 주목한다. 근대초기 제주도가 직면했던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리면서 제주도는 일본 공업계의 노동시장으로 전이하게 되는데, 1923년 제주와 오사카를 연결하는 정기항로인 ‘군대환’이 취항한 이후 제주여성들의 도항은 더욱 가속화된다. 본고는 근대 시기 제주 여성들의 도항 동기와 절차, 오사카에 정착한 이후의 공장 노동조건과 삶에 대해서 문헌자료와 사진 자료, 구술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일본 공장에서 일했던 제주여공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시선을 포착함으로써, 식민지 시기 민족적, 성별적 차별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 희생되었던 여공의 이미지 넘어서, 도시 노동공간의 경제적 주체이자 삶의 행위자로 자리하는 제주여공의 특수한 입지를 살펴본다. 이러한 제주여공의 존재양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본고는 근대 초기 사회주의적 이념 속에 호명되었던 여공의 표상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08-005-J02502)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을 성찰하고 역사적 주체로서의 ‘서발탄’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또한, 제주 여성이 담보하고 있는 ‘로컬리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 당대 ‘중심’에서 이루어진 역사 기술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제어: 여공, 제주여성, 일본공장, 도항, 오사카, 지역성, 근대성, 서발탄

1. 여공과 식민지 근대

1930년대 채만식의 단편소설, 「보리방아」, 「동화」, 「병이 낫거든」 등은 가난한 농촌을 떠나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도시 공장으로 떠나는 시골 소녀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시골의 보통학교를 다니면서 막연히 도회의 삶을 동경하기도 했던 그들은 극심한 보리흉년을 맞아 끼니 조차 잇기 힘들게 되고 혼인마저 어려워지게 되자, 동네를 떠돌며 소녀들을 꺾는 공장 모집책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대부분 도시 방직 공장에서 도시 여성들이 입을 비단을 짜게 되는 시골의 소녀들에 대해 채만식은 「동화(童話)」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비단을 입어보지 못하는 촌 계집아이로, 가령 입지는 못할망정 비단을 제 손으로 찢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해도 업순이한테는 우선 즐거운 꿈이 아닐 수 없던 것이다.”¹⁾ 이 작품에서 여공 모집원으로부터 선불로 받은 돈으로 산 ‘인조항라 껌끼적삼’을 산뜻하게 다려 입고 도시를 향해 고향집을 나서는 업순이의 모습은 20세기 초, 제3세계 식민지 조선의 시골, 익명의 소녀들에게 밀려들어 온 근대의 흔적을 시사한다.²⁾

그런데, 농촌여성들의 도시로의 이동은 조선의 국경을 넘어 제국의 때

1) 채만식, 「童話」, 『채만식전집 7』, 창작과 비평사, 1989, 248쪽.

2) 1930년대 채만식, 유진오, 이기영, 강경애 등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공들의 역사적 존재양식을 재구성하고 서발탄으로서의 여공의 입지를 탐색한 논문으로 서지영, 「여공의 눈을 통해 본 식민지 도시풍경」, 『역사문제연구』 22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10쪽 참조.

트로폴리스에까지 이르게 된다. 일본의 방적공장으로 이동한 시골 처녀들에 대한 기사가 1920년대부터 확인된다.³⁾ 이미 1911년경에 일본 공장에 조선여성이 진출한 기록이 있으며, 1922년 12월 도항(渡航) ‘자유화’ 이후, 더 많은 조선인 여성들이 일본 공장으로 건너가게 된다.⁴⁾ 당시 신문에는 일부 모집원들이 총독부 허가 없이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선의 미혼여성들을 유인하여 일본으로 이동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다.⁵⁾ 그런데, 오사카, 고베 등 일본 관서 지역 공장으로 이동한 여성들 가운데에 많은 수가 제주도 출신의 여성들이었다는 데에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의 경우, 일제 식민통치 속에서 자급자족적 자연경제가 무너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해 제주도의 많은 여성들이 일본의 공업도시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제주사람들의 일본 공업계로의 출가(出稼)는 19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직접 연결하는 정기항로인 ‘군대환(君代丸)’이 취항하면서부터 제주인들의 일본으로의 이동은 가속화된다.⁶⁾ 1934년도 재

- 3) 「海外工女募集과 定州普校生動搖, 학업을 중지하고 녀공으로 해외에」, 『동아일보』, 1924. 5. 19.
- 4) 일본 공장의 입장에서는 값싼 노동력인 조선의 가난한 농촌여성들을 데려오면, 임금비용을 절약하고 언어 문제로 동맹파업의 가능성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부리기 쉬운 현실적 이득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총독부도 조선인 여성의 일본으로의 이동을 장려하였는데, 여공모집을 자유경쟁 체제로 모집원에게 위탁하자 많은 부정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1918년 이후 총독부는 <朝鮮勞動者募集取締規則>을 제도화하여, 각사의 노동자 모집에 대해 일정한 통제를 가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박정희의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재일한국인 여공- 방직, 제사여공」, 『논문집』 Vol. 17, No. 1, 원광대학교, 1983. 122-128쪽 참조.
- 5) 「女工募集이라고 良家 女子 九名을 일본으로 다리고 가다가 잡혀, 안심할수 없는 소위 여공모집」, 『동아일보』 1925. 9. 20; 「女工에 너허준다고 十餘處女 誘引, 감언리설로 처녀를 꼬여내, 犯人 二名은 警察에 被捉」, 『동아일보』, 1927. 5. 8; 「十四歲未滿 朝鮮女工募去, 일본으로 가라는 것을 억류, 釜山에서 畢竟抑留」, 『동아일보』, 1929. 11. 26.
- 6) 근대시기 제주인의 일본 이동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로서 제일 조선인의 역사를 개괄한 강재연, 『재일한국인의 갈등과 도전』, 고성중 역, 북제주문화원, 2005, 유철인, 「在日 제주인과 제주도」, 『동아시아연구논총』 9집,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1998가 있고, 제주인의 일본 ‘도항’을 다룬 전은자, 「제주인의 일본도항 연구」, 『탐라문화』 32집, 제주도탐라문화연구소, 2008, 식민지 시기 제일 제주인의 일본에서의 항일운동, 노동운동을 다룬 金昌厚, 「在日 濟州人의 抗日運

일본 한인 가운데 제주도 출신자는 5만 명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당시 제주도 인구(20만 명)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였다. 또한 오사카(大阪)에 자리 잡은 제주도민 가운데 66% 이상이 공장 노동자들이었으며, 이중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한 여성들의 대표적인 직업이 방직공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⁷⁾ 식민지 시기 조선의 여타 지역에서 일본 공장으로 간 여성들은 대부분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형태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그 경로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일본으로의 도항

動), 『濟州道史研究』 제4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강제인, 「제주도와 大阪-大阪에서의 東亞通航組合과 勞動運動」, 『濟州道研究』 13집, 제주도연구회, 1996, 1920-30년대 본격화된 제주인의 일본 진출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을 시도한 김리나의 『1920-30년대 제주도출신 재일조선인의 오사카 정착』 연세대 한국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2008이 있다. 그밖에 일제시대 제주 출신의 재일 여성활동가들의 행적을 다룬 김인덕, 「일제시대 제주 출신 재일 여성활동가들의 투쟁」, 『제주도사 연구』 8집, 제주도사연구회, 1999, 오사카 지역으로 이동한 제주여성의 이주 체험을 다룬 안미정, 「오사카 재일(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이 있다. 그밖에 구술사 자료로서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사진자료집』,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1)』,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4, 『제주여성의 생애: 삼십이년 살았주-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II-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2)』,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6 등이 있으며, 제주인의 도일(渡日)을 다룬 국외 연구로서, 梶田一二, 「濟州道の地域性 素描」(1934), 「濟州島人の内地出稼」(1935)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I』, 洪性穆 譯, 제주문화, 2010. 高鮮徽, 『20世紀の滯日濟州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東京: 明石書店, 1998, 杉原達,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研究』, 東京: 新幹社, 1998 등이 있다.

그 외 관련 연구로서, 식민지 시기 일본의 조선인 여공의 노동쟁의 실태를 다룬 金贊汀, 『朝鮮人女工のうた-1930年 岸和田紡績爭議』, 東京: 岩波新書, 1982. 식민지 시기 재일 조선인 노동자의 환경과 민족운동을 논의한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 조선인 민족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2001 등이 있다.

- 7)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區) 지역은 일본 속의 ‘작은 제주’라 할 만큼, 일본 사회 안에서 제주출신자들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집단적 거주지로 자리잡게 된다. (강제인, 1966; 전은자, 2008) 또한, 오사카 히가시나리(東成)구는 1928년 당시 약 1만명으로, 오사카 시내에서 거주하는 조선인의 28.5%가 이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당시 히가시나리 지역은 도시화 및 공업화로 향한 기반 정비가 진행되어 화학, 금속, 기계기구, 고무공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공장이 잇달아 건설되었던 지역이며, 많은 조선인들이 일했던 곳이다(김리나, 31쪽).

을 제주시, 조합, 친인척 등이 다양한 층위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일본에 도착한 이후에도 지역 공동체에 흡수되는 특수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제주 여성들의 일본 공장으로의 이동과 정착의 과정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여성들의 일본으로의 이동과 공장 체험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지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시기 자본의 흐름을 따라 ‘내지’, 일본의 공장으로 떠났던 제주 여성에 주목하는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일차적으로 본 연구는 섬이라는 제주도의 환경적 조건과 식민지 통치라는 사회역사적 조건 속에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렸던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제주의 근대성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제주인은 섬을 떠날 수 없다는 조선시대(1629년)의 ‘출륙금지령’ 이후, 공간 이동에 있어 제주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중의 속박을 겪었던 제주 여성들의 근대 체험을 문제 제기할 것이다. 또한, 제주여성들이 해녀들의 물질과 같은 섬 지역의 전통적 노동의 영역을 넘어, 근대적 도시 공간의 ‘직업부인’으로 부상한 여공으로 변신한 지점을 통해 제주 역사 속의 여성의 극적인 전환을 가시화하고자 한다.⁸⁾ 하지만, 본 연구는 제주여성들의 여공 체험을 제주라는 지역적 범주의 특수성으로 수렴시키지 않고, 근대 시기 모더니티의 형성과 여성 정체성 변화라는 보다 거시적인 틀 속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즉, ‘내지’로 이동한 제주 여성들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은 민족과 국경의 권역을 넘어서 자본과 젠더가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식민지 조선의 근대의 일면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근대 초기 여공은 근대사회가 제공한 새로운 여성 직업군으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근대화된 조직과 시설을 갖춘 대도시 공장의 여공은 농촌의 여성들에게 새로운 삶의 형식을 제공하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서지영, 앞의 논문, 12-14쪽).

2. 제주 여성들의 도향과 여공으로의 변신

식민지 시기 본격화된 제주도민의 일본 이주는 1차 대전 발발 이후 일본 공업계의 발달과 이로 인한 노동자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자본가들이 제주를 값싼 노동시장으로 겨냥하게 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초기 제주도가 직면했던 사회경제적 위기와 맞물리게 된다. 농업의 경우, 식민 정부가 제주도에 1913년부터 1916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상당량의 토지를 국유화시키고, 일본에서 부족한 쌀을 조선에서 확보하려는 산미증식계획 하에 미곡 중심의 농정을 시행하면서 논지의 비중이 1%에 불과했던 제주도의 농업 생산력은 더욱 저하되어 제주도민들의 이농화는 가속화된다. 한편, 전통적으로 제주도의 경제적 기반을 지탱해왔던 어업이나 가내수공업마저 존망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제주도민들은 타지로 살길을 찾아 떠나야 하는 심각한 사태에 처하게 된다.⁹⁾ 제주인의 도향 상황은 1922년부터 1933년까지 12년간 통계에 따르면, 1922년에는 겨우 3천 5백 명이었던 것이 급격히 증가하여, 1933년에는 2만 9천 2백8명으로 8배 정도가 된다.¹⁰⁾ 오사카의 경우, 제주인을 포함한 조선인 도향자가 1915년에 400명, 1922년에는 1만 명(제주인 35%), 1935년에는 20만 명, 1941년에 40만 명을 넘어서고, 도향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26년

9) 당시 생활의 안정을 위협받았던 제주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자면, 어업의 경우, 제주도에 도민들 사이에 어획량을 조정해서 난획을 방지하였지만, 그 관행을 무시하는 일본 잠수기 어법이 등장하여 1880년대 이래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해산물이 감소하여 해녀 출가를 야기시킨다. 또한, 제주도는 조선 본토, 나아가 일본의 경제권에 포섭되는데, 기계적에 의한 쌀 값의 면제품이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면서 섬의 지장(地場) 산업이었던 수방(手紡) 면직물이 타격을 받고 제주도인의 생활을 지탱하고 있던 가내 수공업이 위기에 처하면서 상품화폐경제에 포섭되는 취약성을 드러낸다.(杉原達, 88쪽; 김리나, 15쪽)

10) 일본 재주자는 1934년 4월말 당시 남자 2만9천5백62명, 여자 2만6백99명, 합계 5만 2백61명이며, 그중 오사카 재주자는 3만7천9백38명에 이르러 전체의 75%를 점유하게 된다. 그밖에 교토, 효고, 도쿄, 와카야마, 도야마, 군마, 도치기, 이바라기, 야마가타, 이와테, 오키나와의 10현을 제외한 33현에서 북쪽으로 홋카이도, 남쪽으로 는 대만, 남양에까지 이르게 된다.(栴田一二, 「濟州道の地域性素描」 [1934], 329쪽)

에 20%, 35년에는 40%를 넘게 된다.¹¹⁾

여성 도항자의 증가 이면에는 일본 방적회사의 적극적인 노동력 유치 정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1911년 오사카 셋쓰(攝津) 방적회사 가즈가와(木津川) 공장, 1914년에는 도요(東洋) 방적회사 산젠야(三軒家) 공장의 사무원이 직공모집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하고, 오사카의 기시와다(岸和田) 방적회사가 1918년 3월 처음으로 50명의 조선인 여공을 모집을 시도한다.¹²⁾ 1892년에 창설되어 중규모 방적회사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며 조선여공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자 했던 오사카 기시와다방적(岸和田紡績)은 1918년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인 여공은 내지인 여공에 비해 능률은 훨씬 낮아도, 식사, 주택 등에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생활정도도 낮고, 내지인 여공에 비해서 임금도 또한 저렴한데, 비교적 성적이 양호하였기 때문에, 동년 7월에 제 2회로서 백여명의 조선녀를 모집해서, 그것을 本分社 四공장에 분포해서 취업하도록 하였다.”¹³⁾

당시 오사카 부에서 일하는 조선인 방적여공의 약 25%가 기시와다 방적에 흡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공의 모집은 회사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여공을 모집하는 ‘모집여공’과 먼저 취업해 있던 지인, 친구의 소개로 고용되는 ‘지원여공’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실제, 식민지 시기 소작농 출신으로 일본 공장에 모집여공으로 간 이점순의 회상에 의하면 일본에서 온 모집인이 시골에 설치한 여공모집 안내서에는 “3년 일하면 300엔 정도의 저금을 할 수 있다”, “기숙사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있었는데, 당시 이점순이 모집여공으로 일본에 간 함께 여공은 약 100명 정도이며, 모집인의 선전문구가 실제로 다 믿을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목숨을 걸고 일하면 집으로 송금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했다고

11) 杉原達, 53쪽.

12) 杉原達, 79-83쪽; 김리나, 9쪽.

13) 酒井利男, 「朝鮮人勞働者問題-上」, 『社會事業研究』第十四卷 第五号, 1931, p.98, 杉原達, 65쪽에서 재인용.

한다.¹⁴⁾

도항 초기에는 ‘모집여공’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차츰 ‘지원여공’이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¹⁵⁾ 당시, 제주도의 많은 여성들이 자매나 친구가 일하고 있는 일본의 공장으로 직접 가서 지원여공이 되는데, 양석일(梁石日)의 소설 『雷鳴』에는 식민지 당대 제주의 조건과 어린 처녀들이 공장을 찾아 도일하게 되는 역사적 정황이 드러난다. 여주인공 춘옥(春玉)의 친구 영주는 일본으로 떠나는 동기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촌에서 사는 게 싫어서 그래. 밭을 경작하고도 거의 세금으로 빼앗기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도 마찬가지로. 오서방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년에 파종할 것까지 다 먹어버려서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어. 그래서 2개월 전 일본으로 갔어. 제주시에서는 내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일본으로 돈 벌러 가고 있어. 품삯은 싸지만, 촌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지. 일 년 일하고 집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네. 게다가 아버지는 매일 푸념이나 하고 술만 마시고 있고, 어머니와 싸움이 그치지 않아. 남동생과 여동생은 아직 어리고, 금년 겨울을 넘기는 것이 큰 일이야.¹⁶⁾

14) 金贊汀, 23-24쪽.

15) 杉原達, 65쪽. ‘내지’로의 출가의 발단은 오사카나 기타큐슈의 공업지대로부터의 직공모집원의 내도에 기인하지만, 실제로는 계 및 친족의 원조, 그 자극에 말미암은 바가 컸다고 한다. 친족 및 계원 중의 출가귀환자로부터 받은 자극과 출가희망자에 대하여 그 도항여비의 융통, 취직, 숙박소 소개 등의 알선을 해주는 일은 출가를 두드러지게 조정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 무일푼의 사나이라도 출가희망자에게는 인보 상부상조의 계 정신에서 융통이 되었으며, 한 사람의 출가귀환자는 재차 도항 때는 반드시 이웃 또는 지인을 유인하거나 몇 사람이서 출가도항을 했다고 한다. 영농관계상 아무리 잉여노동력이 있어도 특히 언어를 달리하는 지역으로의 출가는 단순한 우인, 지인의 원조만으로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제주도 출가자는 반드시 제주도 공제조합원이어야 했던 만큼 조합의 힘이 컸다. 당시 조합은 본부를 제주도성내에, 그 지부는 오사카 히가시나리구 나가미치(大阪府東成區 中道)에 두고, 내지출가자의 취업소개 숙박소, 주거편의의 알선, 근검저축의 장려, 위생사상의 보급, 풍속도덕의 향상 등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노동자의 능률, 소질을 높이고, 또한 그것이 고용자를 격증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榑田一二, 『濟州島人の 内地出稼』 [1935], 418-419쪽) 당시 섬으로부터의 출가자는 민적등본, 출가허가증, 제주도공제조합원증, 준비금 등이 필요하였다고 한다.(榑田一二, 『濟州道の 地域性 素描』 [1934], 332쪽)

16) 梁石日, 『雷鳴』, 東京: 徳間書店, 1998, 84쪽.

영주를 포함한 10대 처녀들은 당대 제주 농가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여 일본으로 출가를 결심한다. 번 돈을 저금해서 2, 3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때 춘옥에게 선물을 사오겠다고 다짐하는 영주가 일본으로 떠난 후, 모진 시집살이와 어린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고통을 받던 춘옥, 또한 시집을 뛰쳐나와 ‘군대환’에 승선한다. 시집을 나온 여성으로서 더 이상 좁은 섬에 머무를 수는 없어, 육지나 일본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 춘옥은 결국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본으로 떠날 것을 결심한다.¹⁷⁾

무언가가 뒤쫓아 오는 것 같았다.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춘옥은 스스로 되뇌이면서 달빛에 인도되어 어두운 밤길을 무턱대고 걸었다. 2월에 취향했던 <기미가요마루(君代丸)>는 제주섬을 돌면서 항구마다 오사카로 가는 사람들을 승선시키고 있었다. 윤가(尹家)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는 R 항구였다. 그 R항에 오늘 오전 10시에 군대환이 입항할 예정이었다. 그 R항구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있었다. 할 수 있으면 오전 7시까지까지 도착하고 싶었다. 왜냐면 춘옥은 오사카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역시 불안했다. <군대환>에는 반드시 일본 회사의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회사 사람을 만나서 고용해줄 것을 부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¹⁸⁾

두려움과 초초함 속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군대환’에 오르는 춘옥은 오사카에 도착하면 당장 어떻게 할지 대책이 없는 막막한 상태였다. 일단 ‘군대환’을 타면 여공모집을 하는 회사모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배에 올랐던 것이다. 배 안에서 춘옥은 우연히 영주의 여동생

17)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관부연락선 운임비, 일본에서의 기차비와 숙박 등 20엔 정도의 돈이 필요했는데, 하루 종일 음식을 입에도 대지 못했던 농민에게 20엔은 큰 돈이었다고 한다. 고리대에 담보해서 나온 것으로 여비를 공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은 많은 것은 아니었다. 빈곤한 고향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려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방적회사의 여공모집은 어둠 속에서 광명을 비춘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金贊汀, 22-23쪽) 『雷鳴』에서 춘옥은 20엔 50전이라는 적지 않은 여비를 충당하기 위해 시집을 때 어머니가 주신 50엔을 들고 나온다.

18) 梁石日, 『雷鳴』, 244쪽.

영신을 만나게 되는데, 16세의 영신이가 언니 영주가 일하고 있는 오사카 기시와다 방적으로 가기 위해 대담하게 혼자 ‘군대환’에 탄 것을 보고 놀란다. 이 작품에서 춘옥이나 영신에게는 기시와다 방적에 영주가 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춘옥은 “알지 못하는 땅에서, 혼자 일하는 것보다 친한 세 사람이 함께 일하는 편이 여러모로 마음이 든든할 것”(246)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영주가 먼저 가 있는 오사카 기시와다 방적공장은 그들에게 비쳐진 희망의 빛이었던 것이다. 위 작품은 영주와 춘옥, 영신 등 당시 12-13세의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제주도 여성들이 출가해서 지원여공이 되는 전형적인 경로를 재현하고 있다.¹⁹⁾

그런데, 당시 제주 여성의 출가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일차적 이유 외에, 또 다른 동기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양석일의 『雷鳴』에서 춘옥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본행은 불행한 결혼생활에서 탈출한 여성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대안적인 길이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오사카로 이동한 梁禮女라는 제주여성은 자신의 도향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왜 가려고 했는가 하면, 지금과는 달리 제주도는 아이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었는데, 남들이 하는 보통의 만큼도 갖추지 못했다. 신발도, 옷도 게다가, 일본에 갔던 사람은, 예쁘게 하고 돌아왔어. 언니도, 동네 사람도 오사카로 가면, 상당히 좋

19) 杉原達에 의하면, 1925년 당시 제주도 출신 여성은 재일조선인 여성 가운데 29%에 이르렀는데, 1922년에는 남녀 합친 도향자 수의 겨우 9%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자도향자의 수는 20년대 후반에는 20%, 1930년에는 33%, 32년에 45%로 급상승하며, 남녀비율은 거의 1대 1로까지 변화하게 된다. 여자 재류자도 1920년대 후반은 전 재류자 수의 20%였지만 31년계부터 상승을 나타내어, 32년에 31%, 33년에 40%에 달하고 있다. 1934년 당시 일본에 재류하는 제주 출신 여성 2만 688명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3천 586명(17.3%), 16-24세 3천 481명(16.8%), 21-25세 3천 515명(17%), 26-30세 3천 822명(18.5%), 31-35세 2천 670명(12.9%), 36-40세 1천 828명(8.8%), 41-50세 1천 139명(5.5%), 51세 이상 647명(3.1%)으로 방적공을 중심으로 하는 젊은 여자노동자가 재일여성의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더불어, 자녀를 데리고 있을 기혼여성의 재류비율도 적지 않다는 것, 가족까지 모두 정착화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杉原達, 83-85쪽)

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²⁰⁾

일본에 다녀온 자매나 동네사람이 예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 앞에 나타나거나, “하얀 줄이 쳐진 모자를 쓰고 귀향한 학생”의 모습을 보고, 제주도인들은 문명적 삶에 대한 동경을 키웠던 것이다. 梁禮女라는 여성은 오사카로의 수차례의 출회에서 가장 즐거웠던 것은 자신과 가족들이 입을 옷을 만들기 위해 일본에서 목면을 가득 사서 돌아온 것이라 회상하였다.²¹⁾ 제주도민들에게 일본은 단순히 먹을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파라솔, 핸드백, 고무신 등 새로운 스타일과 취향, 보다 앞서가는 감각을 양산하는 진원지이기도 하였다.

섬 아가씨들이 파라솔을 지니기 시작했다. 또 거드랑이에 지냈던 바구니가 핸드백으로 변해간다. 면(面)마다 두부집이 생겼다. 조선 초신이 고무신으로 바뀌었다. 이 무슨 변화냐고 섬의 고로(古老)들은 말한다. 정말 대단한 변화이다.²²⁾

제주로 유입된 근대적 문물의 유통에 적극적으로 공헌한 것은 일본 방적공장에서 일하면서 경제적 주체이자 소비의 주체로 거듭났던 여성들이었던 것이다. 金容煥이 『赤旗』(1959. 5. 12)에 발표한 단편소설 「기미가요 마루(君代丸)」는 ‘군대환’이라는 수송 기제를 통해 식민지 당대 일본과 제주도 사이에 형성된 모더니티의 궤적을 시사한다.

가족 가운데서 반드시 누군가를 오사카로 내보내고 있는 대다수의 도민들 사이에 군대환은 귀중하게 여겨졌다. 선박회사가 많은 이익을 가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군대환은 제주도-오사카간의 대동맥이 되었다. 일본으로부터는 문명과 官吏, 상인, 순경 그 위에 싸구려 잡화, 메리야스 제품을 산더미처럼 실어왔고, 제주도로부터는 값싸고 튼튼한 노동력, 금줄달린 조끼를 입고 싶은 영세상인, 시집가기 전에 방적여공

20) 杉原達, 90쪽.

21) 杉原達, 91쪽.

22) 榎田一二, 「濟州道の 地域性 素描」(1934), 329쪽.

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한 섬 처녀들을 설 새 없이 실어 나르고 있었다.²³⁾

제주도가 처한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식민자 제국과 피식민지 조선 사이의 사회정치적 긴장과는 다른 층위에서 형성된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상품과 노동력의 교역의 회로에서, 방적여공들은 근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1920-30년대 오사카 기시와다 방적(岸和田紡績) 공장의 조선인 여공들의 조선인 여공들



<도상 1> “岸和田紡績 조선인 여공들”(大正末期)

金贊汀, 『朝鮮人女工のうた-1930年 岸和田紡績爭議』(東京: 岩波新書, 1982)

그렇다면, 그들이 도착한 오사카 기시와다 방적공장의 노동조건과 일본에서의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을까? 현재 남아있는 일본 방적공장에 대한 기록과 조사에서 조선인 여공들의 삶의 조건은 매우 열악하고 부정적인 기술로 가득 차 있다. 당시, 공장 인사계 근무자의 증언에 의하면, 공장 안은 고온다습한 상태가 늘 유지되었는데, 이는 실과 기계의 운전을 위해 증기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공장 안은 늘 면화의 솜털이 떠돌고 있었

23) 杉原達, 47-48쪽에서 재인용.

다고 한다. 원면(原棉)을 처리하는 곳에서 여공들은 마치 눈사람처럼 눈을 맞으며 일하고 있는 형상이었으며, 이는 그들의 폐를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비위생적인 환경에다, 감독의 폭력과 감시, 영양부족의 식사가 일상적인 조건이었으며, 독신여공들이 머무는 기숙사는 이불 한 장만이 깔려 있었고, 주근(昼勤)과 야근을 교대로 했던 여공들은 만성 피로와 수면부족 상태에 있게 된다.²⁴⁾

임금의 경우, 1930년 일본 방적여공의 전국 평균 일급은 1엔 5전이었고, 기시와다 방적공장은 1엔 1전이었는데, 사카이(堺) 분(分) 공장의 경우 79전에 지나지 않는 저임금이었다고 한다.²⁵⁾ 하지만, 오사카 최대 방적공장인 기시와다 방적을 비롯하여, 여러 방적공장 조선인 여공의 임금은 일급 35전 정도였으며 방적공장의 경우, 일의 내용과 실적에 따라 임금의 내용은 달라지지만, 어떠한 숙련공도 1엔 이상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고 한다.²⁶⁾ 식민지 시기 오카야(岡谷) 지방 제사 공장에서 조선 여공을 모집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의하면, 하루 14시간 노동, 1시간 휴식, 한 달 2회 휴가가 기본이었고, 뇌물(賄), 입욕료, 침구, 기타 생활에 요구되는 비용,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이동할 때의 여비, 업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도 모두 여공 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까지 오는 비용은 모집인들이 지불하였지만, 그 여비는 일종의 전차금이어서 여공들의 신병을 구속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²⁷⁾ 또한, “낮고 능률적이지 않은 기계를 조선인 여공에게 주고, 기술사정(技術査定)을 낮게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민족 차별이 작용하였으며, 조선인 여공의 실수입(手取)은 매우 낮은 상태로 묶여있었다고 한다.²⁸⁾ 1930년 봄에는 임금인

24) 杉原達, 66쪽.

25) 전전 대판부가 매년 작성한 공장, 노동자수, 임금 등의 통계서인 <大阪府통계서>의 “안화전방적회사각공장별, 남녀별 일일 평균임금조사”와 조선총독부의 <阪神京浜地方 朝鮮人勞働者>의 안방 조선인 직공 임금표 1924년 자료를 보면, 일급으로 남자의 경우, 조선인 최고 1.20엔, 조선인최저 0.60엔, 조선인평균 0.90엔, 일본인평균 1.39엔, 여자의 경우, 조선인 최고 1.30엔, 조선인최저 0.60엔, 조선인평균 0.95엔, 일본인평균 1.03엔이었다고 한다.(金贊汀, 81쪽)

26) 金贊汀, 100쪽.

27) 金贊汀, 55-56쪽.

하와 조업단축이 이어지면서 방적공장 실수입이 40%나 감소되어, 조선인 여공을 포함한 기시와다 사카이(堺) 분(分)공장의 여공들은 동맹파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²⁹⁾

하지만, 열악한 조업환경과 낮은 임금 속에서도 조선인 여공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에 오사카시가 산출한 조선인노동자의 1개월 생활비를 보면, 일용직노동자(土力)의 주거 및 의식비 18원 기타 3원으로 총 21원, 방적남공이 17원, 방적여공이 16원, 유리남공이 14원, 유리여공이 9.5원 정도였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 임금이 점차 낮아지고, 인상되는 물가, 실업 등으로 저금이나 고향으로의 송금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23년 오사카 거주 단신조선인 노동자의 가계구조에서 ‘직공’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월수입	주거비	식비	피복비	잡비	송금	저금	잔액
28원	15원 (53%)				10원 (35%)	2원(7%)	1원(3%)

단신 노동자의 경우, 하숙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건물에 십 여 명씩 합숙

- 28) 당시 오사카 거주 조선인 노동자들 중 40-50%가 일본어 소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일본 노동시장에 투입되었으며, 계약서를 쓸 때나 제반 노동조건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특히 여자노동자의 경우 문맹률은 더욱 높아서, 1923년 조사대상 여자노동자 2,696명 가운데 무학문맹자는 88%, 1930년의 경우에도 문맹률은 84%였다고 한다.(정혜경, 110쪽; 金贊汀, 112-133쪽)
- 29) 당시 파업의 요구서에는, 임금 인하를 철회, 10단계로 세분화해서 구분되는 등급제도를 개선하는 것 외에, “주간 식사, 야간 식사 시간에, 운전을 마치고 30분을 휴게하는 것”, “침구는 여름겨울 2번 교체”, “겨울에는 火鉢(화로)를 설치하는 것”, “외출, 서신, 면회를 절대 자유로 하는 것” 등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최저의 처우를 구하는 항목들이 있었다.(杉原達, 66-67쪽) 야학의 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여공들이 계급적으로 자각하면서 노동운동과의 접점을 만들게 되는데, 일본 각지의 방적공장에 조선인여공이 대량으로 오게 되었던 1918년 이후, 兵庫현의 福島방적, 대일본 방적 明石공장, 日出방적 姫路공장, 대판부 岸和田방적 春木공장, 大福방적대판공장 등에서, 조선인 여공의 스트라이크와 쟁의가 일어났다. 이것은 조선인 여공의 대우개선의 투쟁이었는데, 회사, 경찰이 일체가 되는 탄압책에 의해 대부분의 여공들이 전면 패배하였다. 조선인 여공들의 힘이 자본가 측에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약했던 조건 하에서 투쟁하고 있었던 것이다.(金贊汀, 130쪽)

을 하였는데, 위 표에서 피복비, 식비, 잡비 지출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전체 수입 중에서 거의 반에 가까운 액수(12원)가 송금(10원)과 저금액(2원)이었음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 지출도 자제하면서 저금과 송금을 하고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³⁰⁾

『大阪朝日新聞』(1928. 9. 21)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조선인의 두 소녀의 선행”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오사카부 제일의 방직공업 지역인 센슈(泉州) 지방의 방직회사와 직물공장에 여공으로 일하는 조선부인은, 대략 2천 5백명 정도인데, 유순하고 성실하여 크게 환영받고 있다. 더욱이 ‘조선인은 아주 게으르다’ 라는 비방과 달리 실제로는 오히려 쉴 새 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면서 저금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노무라(野村)직물 공장에 근무하는 박태임(17세), 박안선(16세) 두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자이면서도 부지런하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그래서 불과 13, 14세 소녀의 몸으로 제주도 고산리(高山里)의 집을 나와 내지로 건너왔는데, 그로부터 3년, 모두 이 공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여공이 되었다. 지금은 식비를 공제하면 수중에 월 20엔씩 들어오는데, 그 중 3엔은 용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고향으로 송금하여 저축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³¹⁾

당시 일본으로 출가한 방직 여직공들도 한 달에 10- 20엔을 송금해왔으며, 공장에서 일해서 2-3년에 발(畑) 2-3반 정도 살 자금을 저금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국에서의 생활의 불안, 환경의 격변에

30) 위 통계는 大阪市社會部, 「朝鮮人勞動者の近況」, 『集成』 5와 大阪市社會部, 「朝鮮人勞動者問題」 1924, 『集成』 I 을 바탕으로 작성한 정혜경의 앞의 책 103쪽을 참조하였다.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비참하다. 특히 섭취하는 식물에 있어서는 극심하다... 그들의 생활은 죄수보다도 못하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있는 동안에는 더욱 더 비참한 생활을 한다. 世人 中에는 조선인노동자가 술과 도박으로 수입의 전부를 소비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지만, 실은 그런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그들은 갈아 입을 옷도 갖고 있지 못하고, 돼지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수입의 범위 안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착실히 송금한다...”(大阪市社會部, 「朝鮮人勞動者問題」 1924, 『集成』 I, 378면, 정혜경, 104쪽에서 재인용)

31) 김리나, 49쪽에서 재인용.

대한 불안을 억누르며, 기꺼이 여공모집에 응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

4. 일본 속 제주 여공들의 목소리 또는 시선

오사카 기사와다 방직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정이순 할머니는 조선 인여공들이 조선어로 “女工小唄”를 불렀다고 한다. 이는 당시 ‘여공들이 죽도록 일하게 하는 가혹한 공장생활’을 연상시킨다.

하루의 생활을 마친 후 잠이 들어,
밤중에, 그것도 한밤중(眞夜中)에 깊은 잠에 빠진 때,
괴로운 기상 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머리를 빗고(毛梳) 얼굴을 씻고,
식당에 오면,
먹을 수 없는 밥에 된장국(味噌汁)을
말아 입안에 흘려 넣고, 공장으로 가면
먼지가 하얀 산처럼 피어오르고
전기(電灯)를 켜고,
산더미 같은 직물(ハ夕)을 안고
시간이 흘러 기숙사에 돌아오면,
가족친지 없는 빈 방에 들어가는 서글픔...³³⁾

일하는 도중에 감독으로부터 맞는 등 민족적 천시를 겪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기계 앞에서 앉아 졸면서 일하는 노동조건, 자유롭게 외출도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생활, 인권유린 등으로 인해 많은 여공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들은 공장을 도망해 가도 여공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는 늘 있었다고 한다. 당시 많은 방직회사가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공으로

32) 金贊汀, 22-23쪽.

33) 金贊汀, 77-78쪽.

고용되기는 쉬웠던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방적회사에서 조선인 노동자의 근무 기간이 일본 노동자에 비해 짧았다는 공식적 보고서가 남아있다.³⁴⁾

또한, 당시 조선인여공 가운데에는 영양불량, 과로, 병이 겹치면서, 공장 내에서 사망한 처녀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여공들의 병 가운데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결핵이었는데, 방적여공이 다른 직종의 여공에 비해서 결핵이 많았다는 통계가 있다. 1913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위생학상에서 본 여공의 현황>에서 공장직공 사망자 1,000명에 대해서, 병명별로 결핵 내지 그 의심되는 사망자 수가 방적공장은 481명, 생사공장은 307명, 직물공장은 201명, 제마(製麻) 공장은 313명으로 방적공장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인보다 조선인 여공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³⁵⁾ 한 여공의 증언에 의하면, 기시와다 방적공장의 여공들 가운데 결핵이나 이질, 줄음으로 인한 부상 등으로 제주도출신의 여공이 사망하는 경우, 유체(遺體)를 일본식으로 화장하는 관습에 강력히 저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³⁶⁾

미래의 부푼 꿈을 안고 떠난 조선의 여성들은 일본의 방적공장에서 과도한 노동뿐 아니라, 빈대가 들끓는, 폐쇄된 건물, 탁한 공기,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불과 오염된 침구, 과일상태의 기숙사, 냄새나는 밥, 부패한 생선 등 기대를 벗어난 일상의 현실과 부닥쳐야 했다. 하지만, 당시 오사카에서 여공경험이 있는 할머니들에게 방적여공이 대단히 힘든 직업임을 알고 시작하였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지만 만약 힘든 일이었음을 미리 알았다고 해도 일하러 갔을 것이라 증언한 바 있다. 그 이유는 매일 끼니를 제대로 이을 수 없었던 조선의 농가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³⁷⁾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농촌보다는 도시와 제국의 공장으로 떠날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 당대 제주,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기층민들에게서 발견되는 식민지 모더니티의 역사성이라 할 수 있다.

34) 金贊汀, 105-108쪽.

35) 金贊汀, 114-122쪽

36) 杉原達, 66쪽.

37) 金贊汀, 12쪽.

그런데, 근대 초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제주 지역 여성들의 일본 이동은 여공들을 단순히 식민지 자본주의의 희생물로서 위치시킬 수 없는 또 다른 일면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제주도의 다수의 여성들이 국경을 넘고 도시로 나아가 돈을 벌고, 새로운 삶의 형식과 모더니티를 체험하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식민지 당대 조선의 여성일반에게서는 보기 드문 현실이었다.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변방성(marginality)과 지역성(locality)이 극대화되는 제주라는 공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지역경제와 자본의 직접적 결합 속에서 여성들로 하여금 근대의 전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개척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 재일조선인 노동자와 여공을 다룬 문헌 자료들과는 달리, 일본공장 경험이 있는 제주 여성들의 이미지와 목소리를 담은 사진과 구술 자료를 통해서 당대 여성들의 공장 체험 속에 녹아있는 욕망의 파편들을 보다 세밀하게 읽어낼 수 있다.



<도상 2> “옷공장의 휴일”(현병생, 1940년대 초반)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사진자료집』,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1940년대 일본 오사카의 기노시다 옷 공장에서 일했던 제주여성 현병생은 당시 “15세의 어린소녀로서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생활전선에서 용기 있게 도전”하여 도시의 직업부인으로 변신한 여공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그녀가 소장한 위 사진(도상 2)은 오사카 의류공장에서 한 달에 1-2번 있는 휴일 날, 여공들의 해맑은 표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가혹한 공장 노동과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 희생되어간 조선인 여공의 이미지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 사진 속의 여공들은 혼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40년대 초반,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 의류공장에서 일하던 15세 전후의 제주여성들로서, 당시 재봉틀이 200여대나 있을 정도로 큰 공장이었던 기노시다 의류공장에 취직하여 한 달에 10엔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소개되고 있다.³⁸⁾

또한, 아래의 사진<도상 3>은 1933년 경, 오사카 기시와다 방적 공장 춘계운동회 때 砂川으로 유람 간 조선인 여공들의 단체사진이다. 위 사진의 소장자 강인선의 구술에 의하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테라다(寺田) 방적 공장에 제주여성들이 가족과 자신의 장래를 위해 많이 취직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⁹⁾ 얼핏 보아 교복과 같은 단체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학생들처럼 보이는 여공들의 모습은 공장 내 가혹한 규율과 더불어, 직공들을 공장 시스템의 일원으로 온전히 포섭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복지와 여가 프로그램(원죽,

38)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사진자료집』,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121쪽.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제주여성들의 구술사 자료에서 기억의 방식과 발화 내용은 사실의 차원을 넘어서 스스로를 미화하는 경향도 포함할 수 있다. 역사적 상황을 재구성하는 실증적 자료로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본고는 당대 제주여성들의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서사화하는지에 탐색하기 위해서, 공식 문헌 자료에서 포착되지 않는 여공들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39) 앞의 책, 122쪽.

야학, 영화상영, 음악회, 운동회 등의 문화체험)을 동시에 제공했던 자본주의 공장제의 운용 메카니즘을 시사한다.⁴⁰⁾ 규율의 대상이면서 문화 체험의 수혜자였던 여공들은 근대 제도의 또 다른 산물이었던 것이다.



<도상 3> “春和田紡績會社 春季運動會 砂川遊覽紀念寫眞”, 강인선(개인소장), 1933년.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사진자료집』,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또한, 제주 여성들의 생애사를 기록한 구술 자료 가운데 김재효(78세-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의 경우, 가세가 기울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본에 가서 젓가락공장에 다니며 가족들의 생계비를 벌었는데, 17세에 오사카 이카이노(猪飼野)로 가서 이년 동안 돈을 매달 송금하여 동생들을 대학 공부까지 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⁴¹⁾ 1921년생 김옥화는 14세 때 ‘군대환’을 타고 오사카 방적 공장에 가서 18세에 결혼해서 제주로 19세에 돌아올 때까지 4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데, 자신의 공장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40) 서지영, 16-24쪽.

41)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1)』,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4, 135-136쪽.

어려운 것은 잘 모르고, 돈 벌어지고 이녁 마음대로 노는 날 되면 구경해지고, 볼 것도 많고, 친구들 만났 놀기도 좋고, 이던 오난 감옥살이라. 돈 벌어진 거는 같이 어머니영 살명. 내 돈은 어머니가 쓰지 안허여. 딱딱 모앗다그네 나 결혼허젠 허난 그거 다 어머니가 내어줬어... 처녀시절이 좋 주게. 걱정이 없어. 한가지밖에. 그자 공장에 아침이면 갈 시간 지경가고 또 쫓날 시간되면 쫓나오고...⁴²⁾

위 구술 자료의 경우,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다가 휴가 때 친구들과 놀거나 구경하러 가곤 했던 처녀시절은 큰 걱정이 없었던 시절이었으며, 자신이 공장에서 번 돈을 어머니가 보관했다가 결혼 자금으로 다 내어주었다고 하는 등 여공 체험을 정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비교적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필자는 보다 많은 여공들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0년 6월 18-22일까지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區) 지역, 사회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는 제주여성들 가운데 식민지 시기 여공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도하였다.⁴³⁾ 총 6건의 사례를 전반적으로 종합해보면,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제주도에서 자리 잡고 이후에 나머지 가족들이나 여성이 이동하는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반(3건) 이상 되었으며, 9-16세 사이에 일본으로 이동하여 10-12세의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한

42)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앗주-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III.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2)』,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6, 346쪽. “[현대어 표기] 어려운 것은 잘 모르겠고, 돈은 벌어서 자기 마음대로, 쉬는 날이면 구경도 다니고, 볼거리도 많아서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좋고, 여기에 오니까 감옥살이와 같아. 돈 벌어 온 것은 함께 어머니와 살면서, 내 돈은 어머니가 사용하지 않았어, 모두 모아뒀다가 결혼하게 되니까 그걸 모두 어머니가 내주었어... 처녀시절이 좋았지, 걱정이 없었어, 한가지 밖에는 그자 공장에 아침이면 시간에 늦지 않게 가고, 끝나는 시간이면 끝나서 오면은 되니까...”

43) 필자는 2010년 6월 19-22일에 오사카 이쿠노에 있는 <生野サンボラム>(大阪府 生野區 桃谷 5- 11- 15)이라는 介護시설(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식민지 시기 공장 경험이 있는 제주할머니들 다섯분을 만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한 여성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여공시절의 체험을 접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 주신 할머니들과 현지 조사에 도움을 주신 분들, <生野サンボラム> 스태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경험(6건 중 4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고무공장, 구두공장, 칫솔공장 등 영세공장에서 일하였으며 노동조건은 열악했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언제든지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이 있었음을 슬회했다. 하루 10-12시간 노동에 한 달 평균 10-20엔 정도를 벌었으며,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그들이 번 돈은 대부분 부모의 손으로 들어가 가족의 생활비로 충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면접한 제주 할머니들 대부분의 경우, 수입의 규모나 가족에의 예측 상태로 보아 공장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거나 자산을 축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심층 면접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열악한 조건 속에 있었던 여공 경험이 제주여성들의 삶에 끼친 긍정적 영향력이 징후적으로 포착된다. <사례 1>의 경우, 제주에서는 일할 장소가 없고 일본에서도 일급 받아서 옷을 사 입을 정도이며 큰 여유는 없었지만 모두 일본 가는 것을 부러워했다고 진술했다. 일본은 ‘돈 버는 장소’였고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멋도 부리고 싶었다는 도향의 동기는 당시 제주의 10대 소녀들에게 도시(일본)의 공장이 새로운 삶의 서사를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공장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한 달에 1-2번 휴가 때 옷을 사러가거나 사무라이 영화를 보러가기도 하고 친구와 놀러가는 등 나름대로의 여가생활을 즐긴 경우가 <사례 1>을 포함하여 6건 중 3건이 있었다. 또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학을 다녔으며, 주변에 때로 공장에서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증언은 교육과 부의 축적을 통한 사회적 성공의 욕망이 젊은 조선 여공들에게도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주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본어를 못해 감독으로부터 야단을 맞고 일본사람한테 바보취급 당하였으며 일본인 여공에 비해 수당도 낮았지만 당시는 식민지 시기였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더 좋은 조건의 공장으로 언제든지 옮길 수 있었던 점, 고생을 하였지만 돈을 벌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대체적으로 여공체험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어릴 때의 공장 생활이 몹시 힘들었고, 지금을 할 만큼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고, 부모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보조를 할 정도였다고 술회하였다. 하지만 <사례 2>의 경우, 공장 중에서도 방직 공장에서 돈 버는 조선인들이 있었으며, 제주도 조천(朝天) 출신 중에는 머리가 좋고, 부자인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사치하고 여유가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룹으로 몰려다녔으며, 부모(의 지원)가 있는 경우 ‘하이카’들도 있었다는 증언은 앞에서 제시한 사진(현병생 소장) 속 방직공장 여공들의 모던결과 같은 이미지를 일정 정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 볼 수 있다.⁴⁴⁾ 또한, <사례 5>의 경우, 오사카에는 가난 때문에 제주에서 일본으로 이동하여 기반을 닦은 사람들이 정착하였으며, 특히 제주여성들은 이국에서도 당당히 경제적 주체로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지방 여자들은 공장에서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주출신의 여성들이 많았고, “직접 노를 저어서 일본까지 왔다”고 까지 할 정도로 생활력이 강하고 억척스러웠다고 술회했다.⁴⁵⁾ 이는 섬지방의 열악한 생존조건 속에서 강인하고 독립적으로 삶을 개척해왔던 제주여성 특유의 기질이 일본 공장에서도 발휘되고 있었음을 추정케 하는 대목이다.⁴⁶⁾

여공마다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의 차이로 인해 식민지 당대 일본 공장

-
- 44) 제주도 조천지역은 조선시대 유명한 포구지역으로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관료, 지식인, 유배인들이 보통 이 항구를 경유하였으며 예전부터 이 지역에는 문물을 겸비한 식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유학 지식인들도 많았으며 이들은 고향에 돌아와 지역 계몽 운동과 항일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 45) 2010년 6월 19-22일 오사카 필드조사에서 만난 韓日共生運動家 요시무라(吉村健一, 大阪 生野區 中川 거주)씨에 의하면, 식민지 시기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 여성들은 섬유, 방직 공장에서 일해서 출세하고픈 열망을 가졌고, 고무공장, 신발, 장화, 부츠 만드는 일은 3D 직종 중의 하나였지만,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는 곳이어서 조선인 중에 성공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 46) 장안순의 「이카이노이야기(猪飼野物語)의 제주여성」(『일어일문학연구』 Vol. 67, No. 2,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은 원수일의 소설 <이카이노 이야기>에서 재현된 오사카 이카이노에 정착한 이후의 제주여성들의 강인한 삶의 역사와 일본에서 피식민지인에 대한 압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민족 콤플렉스를 넘어서는 제주여성의 원초적인 기질에 주목한 바 있다.

의 제주여공들을 단일하게 범주화할 수 없으며, 구술자들의 불안정한 기억과 주관적 체험들 속에서 선불리 의미를 추출해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당대의 조선인(제주) 여공들은 식민지 자본주의의 불평등한(계급적, 인종적, 성별적) 시스템 속에 포섭되는 한편으로, 그 시스템의 틈새에서 타자의 전략을 구상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발현하고자 했던 또 다른 행위자(agent)들이기도 하였음을 다양한 자료들과 구술 조사를 통해 일정 정도 가늠할 수 있다.

* 오사카 이쿠노 <生野サンボラム> 방문, 필드 조사 내역(2010. 6. 19-22)

사례1	나이 및 도항 시기	1924년생, 現 86세. 9세 때(1924) 일본으로 건너감.
	도항 동기 및 과정	제주도에서 살기가 어려워져 오빠가 먼저 일본으로 가 자리를 잡고,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이동.
	공장 생활	9-10세 때, 오빠와 함께 일본인이 경영하는 칫솔공장에서 일해 가게에 보탬이 됨. 12-13세 때, 쥬루하시 고무(잡화/플라스틱) 공장에서, 17-18세 때 구두공장에서 일함. 18세에 결혼.
	노동시간 및 수입	노동시간은 아침 6시에서 저녁 7시까지(10-12시간 정도), 수입은 일급 50전 정도 아버지가 엄격하게 돈 관리를 하였는데 언니한테 일부 빼앗기기도 했으며, 옷을 사거나 수선할 때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음.
	여가 생활/기타	한 달에 2번휴가. 유일한 취미가 영화관 가는 것으로 입장료가 20전 정도로 기억. 고무공장에서 친구들도 많았고, 휴일에 옷사러가거나 사무라이 영화를 봄.

사례2	나이 및 도항 시기	1922년생. 現 88세. 12세(1934)때, 3년 일본으로 건너감.
	도항 동기 및 과정	혼자 북목환(후시미마루)타고 감. 일본에 이모가 살고 있었고, 큰 이모 남편이 오사카항에 데리러 옴. 5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 제주에 일이 없어서, 일본에 돈벌이하러 3형제가 이동. 15세 때 가족이 모두 일본으로 이동함. 히가시나리, 모리마치에 정착. 쭈루하시에서 20세에 결혼, 동경으로 이주.
	공장 생활	처음 박스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전쟁 때, 군수공장, 어린이이 책가방, 서류가방 공장에서 일함. 15세 이전에는 손수건 만드는 공장(2-3년)에서 20세까지 일함.
	노동시간 및 수입	수입은 한 달에 20-30엔. 이모 집에 거주하면서 밥값을 주고, 옷 사고 하면 남는 게 없었다고 함. 노동조건은 하루 12시간. 저금은 특별히 못했고, 새어머니가 결혼자금을 지원.
	여가 생활/기타	공장 다닐 때 하루에 1일, 15일 이틀 휴가. 동생들(의붓 형제 8명)을 데리고 영화관에 감.

사례3	나이 및 도항 시기	1921년생. 現 89세. 제주 시흥(성산면) 출신. 11세에 일본으로 건너감.
	도항 동기 및 과정	생계 문제로 이동
	공장 생활	고무공장 (자크, 장화, 부츠, 조선고무신)에서 일함. 남동생은 학교에 다니고, 딸은 공부하지 못하게 함. 야학 3달 다님. 결혼해서도 가족을 위해 공장 일을 지속.
	노동시간 및 수입	노동조건은 아침 7, 8시에서 저녁 6시까지. 야근도 함. 돈을 벌어 모두 부모에게 주었는데, 어떻게든 부모, 자식 잘되게 하는 것이 돈 버는 목적이었다고 함.
	여가 생활/기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못한 게 한이 됨.

사례4	나이 및 도항 시기	1922년생. 現 88세. 제주 서귀포 동흥리 출신. 10세에 부모와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제주로 왔다가, 16세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감
	도항 동기 및 과정	가족이 모두 일본으로 이동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수선 집을 함. 19세에 결혼, 21세(해방) 이후에도 일했음.
	공장 생활	16세에 고무공장. 신발, 장화 만드는 곳에서 일했는데, 고무공장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음.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안 돼서 고무공장에 다님.
	노동시간 및 수입	처녀시절, 한 달에 20엔 정도 벌어 어머니께 생활비 드리고 용돈을 받아 옷을 사 입음. 19세에 군수품 공장 다니다가 결혼. 한 달에 100엔을 벌어, 이를 기반으로 남편과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함. 공장(비옷, 잠바, 장화)경영자가 됨.
	여가 생활/기타	일본어는 야학 다닐 때 어느 정도 배웠고, 수완이 좋고 머리가 좋았으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청소를 다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일할 정도로 부지런했음. 이쿠노 지역에서 장사를 해서 인종차별은 적은 편이었다고 함.

사례5	나이 및 도항 시기	1934년생(77세 추정). 제주도 삼양 출생. 4세 때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동.
	도항 동기 및 과정	중2때 아버지(78세) 돌아가심.
	공장 생활	일본에서 초등학교 졸업 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1년 동안 공장에서 일해야 했었음. 다른 가족(새어머니)은 제주로 돌아갔지만, 학교에 다니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함. 중학교 때 구두공장에서 1년 일함.
	노동시간 및 수입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고무공장은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님. 학교 다닐 때에도 휴가 때에는 공장에서 일함. 장화 공장에서 일하면서 신발 1개에 30엔 정도로 많이 벌었음. 공장일로 언니 가족을 돕기도 했음.
	여가 생활/기타	대학까지 마치고 수학교사로 근무. 후에 수학 학원 경영.

사례6	나이 및 도항 시기	1915년생. (작고)
	도항 동기 및 과정	18세에 제주도에서 결혼하여 지내던 중, 일본이 신천지라는 말을 듣고 가난한 생활을 타개하고자 이동. 오사카에 살고 있던 오빠를 의지해서 혼자 도항.
	공장 생활	아는 사람으로부터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있던 방적공장의 모집에 응모하여 취직. 한국인이 몇 명 있었지만 자기만 실 갖는 일을 하는 곳에 소속되고 다른 사람들은 허드렛일을 했음(청소나 더러운 것을 취급하는 일).
	노동시간 및 수입	약 1~2년 정도 일을 하는 중 왼손 검지 손가락이 벗겨져서 굵게 되어 절단해야 되는 상황에까지 이룸. 일본인편을 드는 상사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가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공장을 나와 오빠가 있는 곳으로 감.
	여가 생활기타	1936년경, 방적공장에서도 같이 일하던 동향 친구와 교토에 놀러가서 찍은 사진이 남아있음. 방적공장시절 재일조선인 중에 자기만이 좋은 곳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던 것을 회상하며, 그런 자신을 부끄러워 함.

5. 근대초기 제3세계 서발턴, 일본 공장의 조선인 여공

김찬정(金贊汀)의 『朝鮮人女工のうた-1930年 岸和田紡績爭議』(1982)는 근대초기 일본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착취당하고 희생되었던 일본 여공들의 실상을 파헤친 호소이 와키조(細井和喜藏)의 『女工哀史』(1925)가 미처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본 공장의 ‘조선인 여공’들에 주목한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이는 자본주의 근대 내부의 계급적, 성별적 타자로서의 ‘여공’ 이면에 다시 인종(민족)적 차별을 겪었던, 타자 속의 타자, 조선인 여공의 ‘서발턴’(하위주체-‘종속집단’, ‘하층민’)으로서의 위치를 가시화하는 역사적 시선이라 할 수 있다. 일본으로 간 조선인 여공은 근대 초기, ‘동양

의 맨체스터⁴⁷⁾라 불리며 일본 자본주의의 근간을 형성하였던 국제도시 오사카의 저변에서 공급된 최하층 노동력이자, 일본인 감독이나 일본인 여공으로부터 착취당하고 ‘더러운’ ‘조선폐지’라 불리며 인간적 학대를 받은 존재들이었다.⁴⁸⁾ 또한, 모집원의 간계에 빠져 공장에 도착하기 전에 유곽에 팔아넘겨진 조선인 여성들에 눈을 돌릴 때, 그들의 타자성은 더욱 심화된다.⁴⁹⁾

그런데, 도시의 여공이 되는 꿈에 부풀어 일본으로 건너가는 모험을 감행했지만 도중에 유곽에 매춘부로 팔려간 조선인 여성과, 제주에서 일정한 도항의 절차를 거치고 오사카와 같은 제주출신의 지인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오사카와 같은 안정된 공동체 속에 편입되었던 제주 여공들의 사례는 근대 초기 존재했던 여공에 대한 표상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이는 또한 지금까지의 근대사 기술에서 이루어진 ‘서발턴’으로서의 여공에 대한 재현의 정치학을 문제 제기한다.⁵⁰⁾ 여공에 대한 표상은 1930년

47) 杉原達, 225쪽.

48) 金贊汀, 126-133쪽.

49) 金贊汀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위탁모집의 모집인 가운데에는 ‘女衛’(‘여자를 파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악질의 모집인이 많았다고 한다. 공장으론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났다가 유곽으로 팔려간 여성들은 소위 “불행한 사람들”로 지칭되었던 존재들인데, “모집인이 이렇게 관계를 접촉시켰던 여성을 여러 공장에도 전전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랑에 팔리거나, 鎔酒屋에 사창으로 갔던 것을 나만해도 수십건 알고 있다.”라는 증언에서와 같이 역사적으로 분명 존재하였지만 당사자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며, 그들은 “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듣는 것은 사람의 심정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들은 것”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존재이자, 소문이나 침묵 속에서 인지되는 존재들이었다.(김찬정, 29-36쪽). 김찬정은 이러한 ‘불행한’ 조선인 여성들에 주목하면서 일본의 조선인 매춘부에 대한 기록을 추적하였는데, 일본의 국제조사 자료에서 “여관, 요리집, 음식점 등의 여중, 급사인” 1, 678인 가운데, “여관, 요리집, 음식점, 貸席, 番頭, 客引(여성)” 422인 가운데 ‘창부’, ‘창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유곽에서 매춘했던 조선여성들 가운데, 방적여공, 제사여공으로서 응모했다가 악질의 여공모집에 의해 속아서, 창굴에서 던져졌던 예가 많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김찬정, 37-38쪽)

50) 본고가 사용하는 서발턴(subaltern)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에 종속되는 하위 계급적 범주로서 프롤레타리아, 농민에 한정되지 않고, 다층적인 권력체계(계급, 성별, 인종, 섹슈얼리티)로부터 억압받는 주변부적 존재성을 포괄하면서, 그 이면에 정치적, 문화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보다 복합적인 역사 주체로 파악하고자 한다.

대 사회주의 지식인(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공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는 희생물이거나 계급 혁명의 전사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일원으로서 호명되어 왔다. 하지만, 서발턴을 재현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근대 초기 식민지 조선 여공의 표상에 주목해 보면, 주체적 행위성(agency)과 제도의 희생물이라는 서발턴 내부의 이질적이고 불안정한 주체성과 만날 수 있다.⁵¹⁾ 특히, 본고가 주목한 근대초기 일본공장으로 이동한 제주의 여성들의 사례는 민족과 계급의 지표에 깊이 연루되었던 여공의 지배적 표상을 가로질러 주체화(subjectification)에 이르는 서발턴의 역동적 이미지를 현저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여공 내부의 ‘차이’의 기호들에 주목하면서, 식민지 시기 스스로를 ‘말하는(speak)’ 조선인 여공들의 목소리와 시선을 새롭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주출신의 여공에 대한 본 연구는 기존의 여공 이미지를 전복시키는 서발턴으로서 여공의 다면적 입장을 가시화하고, 자본(계급)과 젠더 사이의 복잡다단한 관계망을 문제 제기할 뿐 아니라, 로컬리티를 통해 ‘중심’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지역사의 사례로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⁵²⁾

(김택현,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보』 Vol. 200, 역사학회, 2008, 640-642쪽 참조)

- 51)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1988]에서, 가야트리 스피박은 재현의 이중적 의미 즉 지식인들이 하위주체를 ‘재현’(re-present)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표’(speak for)하면서 자신들을 투명한(transparent) 존재로 나타내는” 과정을 문제 삼고, 이념적 담론 속에서 존재하는 역사적 주체와 본질적 ‘계급’(주체) 사이의 괴리를 제기한 바 있다.(Gayatri 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Macmillan, 1988, 275-84) 필자는 선행 연구 「여공의 눈을 통해 본 식민지 도시풍경」에서, 스피박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1920-30년대 소설과, 신문, 잡지 기사 속의 조선 여공의 표상을 문제 삼고, 재현의 틀 속에 포섭되지 않는 여공의 서발턴니티(subalternity)를 탐색한 바 있다.
- 52) 이는 지금까지의 ‘중심’의 역사기술 즉 중앙(서울) 중심의, 계급(지식인) 중심의, 남성 중심의 역사 기술 속에서 누락되거나 단절되었던 로컬리티(제주[지역]/ 여성[젠더]/서발턴[비지식인 하위주체])를 복원하여 근대사 기술의 보편성과 일반성의 범주를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 일차자료

- 『동아일보』, 『大阪朝日新聞』
채만식, 「童話」, 『채만식전집 7』, 창작과 비평사, 1989
梁石日, 『雷鳴』, 東京: 徳間書店, 1998

2. 이차 자료

- 강재언, 「제주도와 大阪-大阪에서의 東亞通航組合과 勞動運動」, 『濟州道研究』 13집, 제주도연구회, 1996, pp. 281-289, 『재일한인의 갈등과 도전』, 고성중 역, 북제주문화원, 2005.
- 김리나, 『1920-30년대 제주도출신 재일조선인의 오사카 정착』, 연세대 한국학 협동과정 석사논문, 2008.
- 김인덕, 「일제시대 제주 출신 재일 여성활동가들의 투쟁」, 『제주도사 연구』 8집, 제주도사연구회, 1999, pp. 39-55.
- 金昌厚, 「在日 濟州人の 抗日運動」, 『濟州道史研究』 제4집, 제주도사연구회, 1995, pp. 258-273.
- 김택현, 「다시, 서발턴은 누구/무엇인가?」, 『역사학보』 Vol. 200, 역사학회, 2008, pp. 637-663.
- 박정의,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재일한국인 여공- 방직, 제사여공」, 『논문집』 Vol. 17, No. 1, 원광대학교, 1983, pp. 119-146.
- 서지영, 「여공의 눈을 통해 본 식민지 도시풍경」, 『역사문제연구』 22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10, pp. 7-31.
- 안미정, 「오사카 재일(在日) 제주인 여성의 이주와 귀향」, 『탐라문화』 32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pp. 179-218.
- 유철인, 「在日 제주인과 제주도」, 『동아시아연구논총』 9집,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1998, pp. 393-402.

- 장안순, 「이카이노이야기(猪飼野物語)의 제주여성」, 『일어일문학연구』 Vol. 67, No. 2, 한국일어일문학회, 2008, pp. 299-320.
- 전은자, 「제주인의 일본도향 연구」, 『탐라문화』 32집, 제주도탐라문화연구소, 2008, pp. 137-178.
- 정혜경, 『일제시대 재일조선인 민족운동 연구』, 국학자료원, 2001.
-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제주여성사 자료총서 1/사진자료집』,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1.
- 『구술로 만나는 제주여성의 삶 그리고 역사-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1)』,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2004.
- 『제주여성의 생애: 살암시난 살앗주-제주여성사 자료총서 VII 제주여성 근현대사 구술자료(2)』,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6.
- Gayatri 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Macmillan, 1988
- 高鮮徽, 『20世紀の滞日濟州人-その生活過程と意識』, 東京: 明石書店, 1998.
- 杉原達, 『越境する民-近代大阪の朝鮮人研究』, 東京: 新幹社, 1998.
- 金贊汀, 『朝鮮人女工のうた-1930年 岸和田紡績爭議』, 東京: 岩波新書, 1982.
- 榎田一二, 「濟州道の 地域性 素描」 [1934], 「濟州島人の 内地出稼」 [1935], 『일제강점기의 제주도 I』, 洪性 穆 譯, 제주문화, 2010.

<ABSTRACT>

Women from Jeju Island Who Moved to Japanese Factories in Colonial Korea

Suh, Ji Young

(The Korean Women's Institu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labor experience of women from Jeju island in Japanese factories in the colonial period. Jeju island became the labor market for Japanese industries along with its socio-economic crisis in the early modern period. In 1923, with the advent of the ship 'Gundewhan', a regular sea route from Jeju to Osaka was opened, which enabled women from Jeju to cross over to Japan. In this study, I look at Jeju women's motivation of crossing, the procedures, the labor condition and life pattern after settlement in Osaka, Japan. I used written documents, pictures, oral data, and in-depth interviews as the research methods.

By capturing what happened through the factory women's own voices and eyes, I illustrate the specific position of the Jeju factory women as economic subjects in the urban working place and as agents of their own life, beyond the main representation of the factory girls in colonial Korea as a sacrificial image in the racial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poor labor condition. This study will give a chance to introspect the 'subaltern' as a historical existence, not just as an ideological representation and reconsider the history writing which has been performed by the perspective of 'center', through the new recognition of locality in 'Jeju Women'.

Key words : Factory Girl, Jeju Women, Japanese factory, Osaka, crossing, locality, modernity, subaltern



논문접수일 : 11.8 / 심사기간 : 11.16~12.5 / 게재확정일 : 12.10